

회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Bottom-up 시스템

정보과학회 회원님, 안녕하세요? 차기회장 후보 박희진 교수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학회에 회비를 내는 학회의 ‘주인’입니다! **저는 회원 분들께서 원하는 일은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회원들께서 원하시는 정보과학회 영문저널의 SCI(E) 등재와 소사이어티(연구회, 지부)의 자율권 강화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들께서 원하지 않는, 회원들에게 등록을 부탁하는 불필요한 전시성 학회행사는 없애겠습니다. 더 나아가 회원 분들께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학회 내부에 bottom-up 의견 수렴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렴한 회원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과학회 영문저널의 조속한 SCI(E) 등재: SCI 등재 저널을 가진 다른 학회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학회에서 SCI 저널 등재 경험을 가진 분이 정보과학회 회원이라면 이 분의 경험이 정보과학회 안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소사이어티가 자체적으로 저널을 만들어서 SCI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저널은 SCI 등재 이후에도 해당 소사이어티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SCI 등재 유지에 좋습니다.
2. 학회 실적만을 위한 불필요한 행사 자제: 실질적인 수요가 크지 않은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들에게 등록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의 행사 개최는 외부에 보여주기에는 좋으나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모성 행사를 자제하고 더 시급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학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3. 이 이외에도 BK 사업단에서 컴퓨터분야와 전자분야의 분리, 소사이어티(연구회, 지부)의 자율적 운영 보장을 법제화, 학회와 산업체간의 실질적 산학협력의 활성화, 온라인 회의를 통한 전국 회원의 의사 결정 참여 확대 등의 중요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차기회장에 당선되면 전체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bottom-up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bottom-up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된 요구사항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은 요구사항부터 실현하기 위해 학회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bottom-up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회원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학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차기회장 후보 박희진 올림

제가 경험한 Bottom-up 시스템의 장점

저는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에서 16년째 근무하고 있는 박희진 교수입니다. 저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과학회 활동(컴퓨터이론연구회 위원장,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위원장, 상임이사, 이사, 논문지 편집위원)을 해왔고 한양대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보직(소프트웨어 융합원장, 소프트웨어 전공주임)을 수행하여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는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과학회를 한 층 더 발전시키고자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회 내에서 여러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한양대에서 보직을 맡아서 활동하는 동안 상향식(bottom-up) 운영 방식의 장점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의 의견(특히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듣고 그 분들과 함께 고민하면 제가 혼자 고민해서 결정할 때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학회는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bottom-up 방식보다는 소수의 회장단이 관리하는 top-down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학회를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는 좋지만 열정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회원님(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서 학회를 발전시키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보과학회에 실망한 어떤 회원 분들은 정보과학회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회에서 더 열심히 활동하시거나 독자적으로 학회를 만들어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차기회장에 당선되면 하루빨리 정보과학회를 개혁하여 이런 훌륭한 분들도 우리 학회로 다시 돌아오셔서 학회 발전에 기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제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과학회 컴퓨터이론연구회 위원장(2016-현재)
- 정보과학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위원장(2018-현재) 및 위원(2010-현재)
- 정보과학회 상임이사(2016), 이사(2014, 2017-현재) 및 논문지 편집위원(2011-현재)
-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원 원장(2016-2018): 학생 3000(명/년) 기초교육 총괄 담당
-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전공 전공주임(2013) 및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2003-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BK연구교수(2003)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학사(1994), 석사(1996), 박사(2001))